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도로' 예타 면제 건의

공영민 군수, 기재부·국토부 방문해 전력·용수 공급 등 요청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연계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찾아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연계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가산단 연계도로인 고흥읍-봉래면 33.45km 구간은 2차로로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대형 장비 운송 불편, 이동시간 지연 등 우주산업 육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입주할 희망하는 우주 기업들은 우주발사체 제조 및 발사에 필요한 부품 시험·인증 등을 위해 약 1시간씩 걸리는 고흥읍-나로우주센터 33.45km구간을 수차례 왕복해야 한다.

따라서 우주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산단과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흥군은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이 주재하는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연계도로 예타면제 건의와 함께 국가산단의 기본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에 대한 차질 없는 공급, 우주산업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 목록에 포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국가산단 준공 시기인 2030년에 맞춰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만 국가 우주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연계도로에 대한 예타면제로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 부처의 협조를 건의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공영민(가운데) 고흥군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제6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연계도로 예타면제를 건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구례군 봄철 산불 발생 '제로' 상황실 운영·비상근무 강화

구례군이 지난 2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2월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 특히 주말과 휴일, 관광 성수기에는 비상근무를 강화했다.

구례군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53명을 선발해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산림 연결 지역의 농업 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농업 부산물 110을 수거·파쇄하며 산불 조심 기간 소각금지제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또 주요 명산과 관광지 등 35개소에 산불예방 현수막과 산불 깃발을 달고 지난 3월에는 전남도 산림 부서와 함께 산수유목 축제장 일원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관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구례군은 올해 국비 등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산불대응센터는 군청사 옆에 연면적 161㎡ 규모로 건립되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의 대기실을 비롯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모니터링실, 진화 차량 차고, 장비 보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춰 산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ISO 14067 기반 제품탄소발자국 검증서 수여식

일자 : 2024년 5월 22일(수) | 장소 : 서울 포스코센터



지난 22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ISO 14067' 검증 수여식에서 엄기천(오른쪽)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 송지영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국제표준 'ISO 14067' 인증서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았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인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양극재 PN6, PN8(포스코퓨처엠이 제조하는 니켈 함량 60%, 80% 이상 양극재 제품)과 천연흑연 음극재에 대해 국제표준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며, 'ISO 14067' 은 탄소발자국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했다. 한국품질재단은 기업 또는 단체의 탄소 배출량 측정 과정에서 국제표준 'ISO 14067' 준수 여부를 평가해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발급한다.

탄소발자국은 2006년 영국의학 과학기술처에서 최초로 제안한 이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 및 신고가 의무화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이 어렵게 된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배터리·완성차사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JV (Joint Venture) 설립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음극재 탄소발자국 검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배출량 관리체계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양·음극재 탄소발자국 검증 자료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생산공정 분석,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 등에 활용하고, 향후 하이니켈 단결정 NCMA·NCA 양극재 등 차세대 제품을 대상으로도 탄소발자국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탄소 연료 전환,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2035년에는 배터리소재 사업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시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여수시가 주택용 태양광 발전 등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은 여수국가산단 운영에 쓰인다.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가 올해 처음 벌인 공모에 선정되면서 여수시는 국비 10억원, 도비 8600만원, 민간 자본 2억8600만원 등 사업비 13억72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한 사업안을 발굴·지원해 지역 기반의 에

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여수시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소(주택용·공공용) 전력거래 실증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여수국가산단단지 기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용 태양광 소유 주민이 남는 전기를 개인 간 전력거래로 인근 가정의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주원시스템 컨소시엄을 통해 대상지 확보와 관리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산단에는 전력거래 관제실을 구축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득량면 조양천 일원에서 대대적인 수목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천년의 분재거리' 조성 천변 수목 정비

보성군이 '천년의 분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천년 12km 일대 수목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성군은 보성을 봉화천과 득량면 송곡천·조양천 등지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했다.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나무 부러짐과 넘어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정비 작업을 벌였다. 이번 작업에서 나무 키를 낮추고 뿌리와 줄기를

키워 경관을 개선했다.

보성군은 올해 6월까지 민원이 제기된 수목과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 총 1522주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울어진 나무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 수목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65세 이상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순천시는 65세 이상 시민은 여름철 면역력을 보강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했다.

순천시는 1년 이상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4만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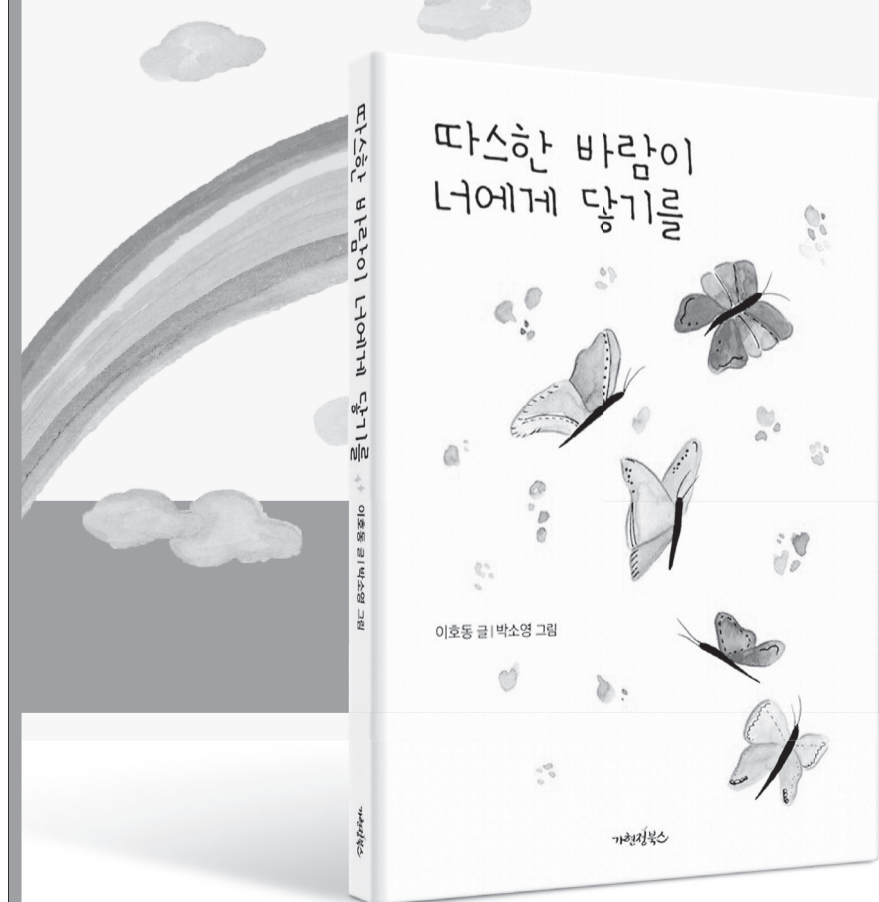
대상포진은 신체 비활성과 상태로 잠복해 있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질환을 겪으면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이 생긴다.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생백신 금지 대상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는 회복 후 6-12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다. 순천시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1부(일주일 이내 발급)를 갖추고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취약계층은 신분증과 관련 서류(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를 지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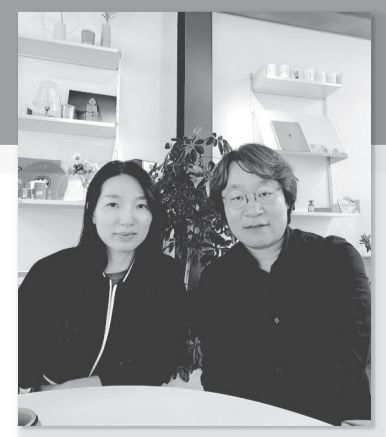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